

드림꽃편지 639

2022.4.20, 곡우호

<https://cyw.pe.kr> 햇별같은이야기

한송이 이름없는 들꽃으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을 가득 태운 관광버스가 푸른 호수와 산과 꽃이 가득 피어있는 평화로운 들판 사이를 달립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누가 어디에 앉느냐로 한바탕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론은 '누구든 자리가 비면 가장 빨리 가서 앉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밖에 흘러가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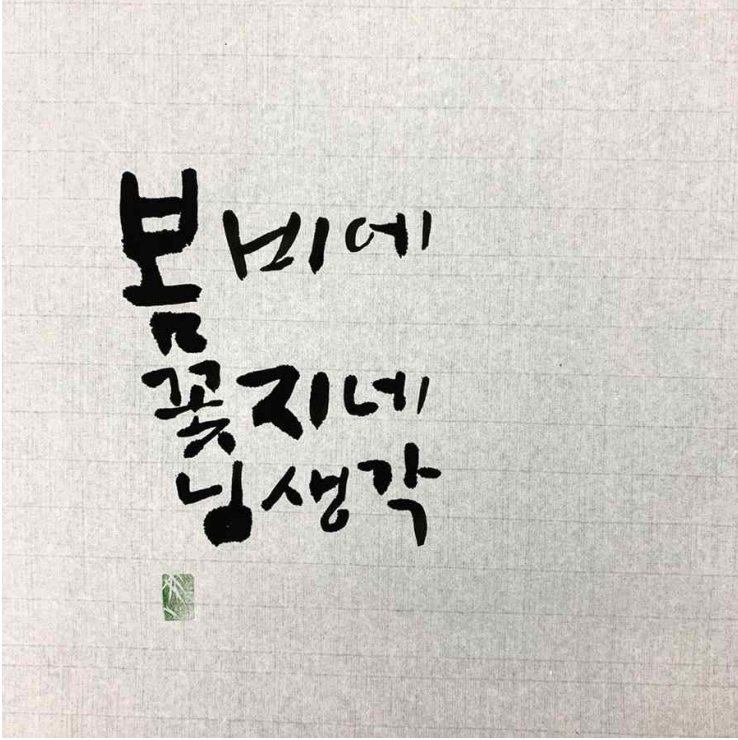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했을 때, 박수를 받았을 때 정말 그 순간은 짜릿하죠. 그런데 일출이나 서서히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를 바라볼 때, 무더기로 피어있는 산수유나 벚꽃을 볼 때도 우리의 뇌(腦)는 동일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순간은 불안한 '세속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동은 여운이 오래가는 '영혼의 감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등치가 크고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보스 기질이 있었습니다. 청년때까지 그렇게 뿔 만들고, 조직하고, 꾸미고 별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밀려오는 '허무감'을 느끼고 서점에 갔다가 이현주님의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역사적인 만남이었죠.

그로부터 저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무슨 단체의 '장'이나 이익집단 같은 것(심지어 교회까지도)을 만들어서 무슨 '담임'이나 이런 것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냥 들판의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살다가 아궁이에 던져지고 싶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다짐을 잘 지키며 들꽃처럼 살고 있습니다.

♥봄에 취해 정신없는 최용우 올립니다.



봄비에
꽃지네
님생각

©예장 이준우

소나무 한그루

소나무 한 그루 베어 넘기면
쓰러지는 건 소나무만이 아니다.

솔가지 타고 오르던
다래 넝쿨도 끊어지고

송이버섯 키우던
향기로운 그늘도 걷히고

그리운 고향 같은
솔바람 소리도 함께 사라진다.

소나무 한 그루 베어 넘기면
무너지는 건 소나무만이 아니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30 이렇게 강박한

밤 10시 마지막 경비 순찰과 청소를 끝내고 11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는 휴게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경비실내 간이 침대에서 이불도 없이 그냥 눈을 붙이는 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다가 오작동 화재 경보기가 울리거나 정화조 비상벨이 울리거나 아파트 주민이 전화를 하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 2시에 한 주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위 집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투덜거리며 15층 아파트 주민에게 전화하니 한밤중이라 받지를 않습니다.

15층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 보고 어찌라는 거야. 저 개새끼 주렁이를 그냥 확...”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즉시 마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강박한 모습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니 한쪽 눈이 아퍼 옵니다.

거울을 봤더니 실핏줄이 터져 빨강게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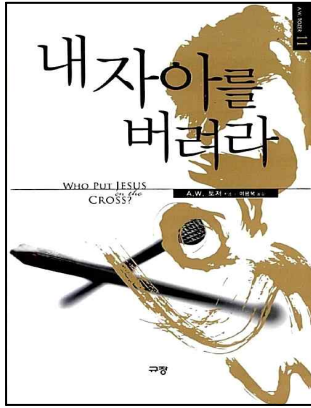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내 자아를 버려라



토저 마이티 시리즈 11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72쪽 10,800원 규장 2008

토저가 생애 공식 석상에서 한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토저는 '자기를 사랑하면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1.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자아를 거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아에게 지배당하는 나라에서 임마누엘의 나라로 넘어가 영적 승리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합니다.

2.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자아를 교육하고 관용하고 세련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아주 끝장 내버리기 위해서 박살 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진리 사이에서 어정쩡한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3. 십자가와 포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연단과 고난의 십자가 종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기독교는 어느새 '달콤한 포도주 종교'가 되어서 위로나 받고 격려나 하고 복이나 주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은혜에 취해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편히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4.대중 교회에서

교회는 등 두드려주며 값싼 위로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대중 신앙생활 하다가 대중 천국에 가려면 대중 설교하는 교회 가십시오. 그러나 그 물이 목에까지 미치는(사8:6-8)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5.값싼 복음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에 매우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일만큼 힘든 일도 없는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렇게 복음을 싸구려로 팔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풍요와 부(富) 그리고 탐욕의 신 맘몬(mammon)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부터입니다.

6.가장 큰 재앙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광대한 피조 세계에서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대재앙입니다. 원래 인간은 지구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범하여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거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 잠깐 동안도 온갖 질병과 수고와 슬픔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7.부자 청년

성경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19:21-22)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한군데 나무랄 데 없는 모범 기독교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마19:20) 그 청년의 말은 사실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누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가롯 유다, 본디오 발라도, 유대인들, 당시 군중들... 그 누구에게 그 죄를 떠넘기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지문도 찍혀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나는 오늘도 용광로처럼 솟아오는 분노와 악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박고 있습니다.

9.성령님의 확증

많은 교회들이 거듭남,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救贖),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책망만 합니다. 심지어 당사자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책망한다고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야만 그렇게 살아집니다.

10.불사조(不死鳥)

불사조(phoenix)는 아라비아 사막에 살며 500년마다 스스로 불타 죽고 그 재 속에서 부활한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사(不死)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불사조가 일단 날아오르면 지평선 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11.부활의 의미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철권 통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능력이 무력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12.정치와 종교

정치와 종교와 도덕성은 서로 깊이 얽혀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한 국가의 윤리적 삶과 기준은 그 국가의 종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결정은 그 시대의 종교적 및 윤리적 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썩었다는 말은 '종교가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썩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생명이신 주님

생명은
죽음 앞에서
살아난다.

누구든
죽음 앞에 서면
생명을 보게 된다.

죽음의
어깨 너머로
맑은 생명이
손짓하고 있음을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中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러) 13600원

[덧글]

생명이신 예수님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 부자 되겠다’는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넘나들며 인생을 다 걸어버린 절벽 끝에서야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젯덩이에 불과한 몸뚱아리를 위한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노후 걱정 없는 돈이 통장에 적당히 있다고 안심하는 고급 신앙인에게는 ‘삶의 절박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올라오는 아침 해의 찬란함, 죽음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명징함! 그 신비스런 ‘생명의 신비’ 여기에 예수님의 심비(心泌)가 있다...

아아아... 아시스의 프란시스코가 맨발로 다니며 찾아 헤맸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99.하나님은 인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존재하고, 생활하고, 하늘과 대지를 내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탐구할 수 있는 정신과 이성을 가진 것은 그 어떤 감사의 말로도 갚지 못할 은혜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의 중압감에 짓눌려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 즉 부정(不正)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우리를 결코 저버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내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육신을 취함으로써 태어났고 고난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독생자의 그 유일무이한 희생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퍼져 나가(롬5:5)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고 하나님의 관조가 가져다주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200.그리스도의 비밀의식은 이미 훨씬 이전에 예시되었다

영원한 생명의 신비는 인류가 나타난 이래, 시대마다 들어맞는 어떤 상징이나 종교의식, 천사들을 통해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졌다.(갈3:9, 행 7:38, 히9:2) 히브리 민족은 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로 모아졌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었다. 또 이 민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가올 영원한 구원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 이교도들 사이로 흩어져 갔다.

201.그리스도교의 이교도 신들 정체 폭로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교는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의 정체는 부정하기 짝이 없는 정령들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인간은 악령들을 타락시킨 교만에 맞설만한 겸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부활한 그분(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비로소 악령들의 잔인하고 불경한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회개(2)



8. 감정과 의지

제가 25세의 아름다운 한 자매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알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나면서 사랑의 회오리가 휘몰아쳐 이 자매와 결혼해서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4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평생 같이 살아야 하니 그때부터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감정'에서 '의지'로 바뀐 것입니다.

아마도 젊은 청춘남녀에게 흔히 '눈에 콩깍지 씌었다'라고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결혼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보전을 위해 어느 한 순간에만 주신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부터는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정의 노리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정은 인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일은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 일도 흐지부지되거나 억지로 하는 '고역'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했더라도 반드시 '의지'로 갈아타야 합니다. 의지는 우리의 영혼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네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분위기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

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있는 모든 악의 뿌리는 '의지의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7149)

9. 의지적 회개

인간에게는 육신과 영혼이라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육신을 다스리는 의지'와 '영혼을 다스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은 스스로 권한을 지니도록 창조되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잃고 죄의 법 아래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7)

우리는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육신을 다스리는 의지'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법 아래 있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나 '반성'입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는 대부분 '부패한 의지'의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육신적 의지의 회개조차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회개는 '영혼을 다스리는 의지'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럴지라도 먼저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고자 하는 개인적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의지적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뻗속 깊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의지적으로 회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대로 회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회개의 영'(시51:17)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7150)

10. 회개의 실제

저는 저의 두 딸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며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수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삶이 힘들니까? 그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담 이후로 '죄성'이 생겼는데, 이 '죄성'이 바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과 삶에 들어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성'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을 몰아내고 '죄성'을 끊어버림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성(죄를 추구 하는 성향)을 끊는 과정인 회개는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낸 상태를 다시 태어났다고 하여 ‘거듭났다, 중생, 신생, 새생명,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구습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상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7151)

11. 세대 죄의 회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왜 그 후손들도 덩달아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왜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만, 그의 죄로 인해 자식과 손자 7명이 뜬금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죄로 인해 그 자녀들이 모두 불의의 죽임을 당합니다. 조상의 잘못으로 후손이 화를 당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20:5)

‘가계 저주론’이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교조주의자들이 문제 삼아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양심적인 신학자는 이름을 ‘가계 축복론’이라고 했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문제들의 대물림은 왜 아니라고 하죠? 교인들의 대물림된 죄의 고통에 대해 교조주의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딱히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해야 될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해봅니다. 첫 번째는 세대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을 회개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세대란 나로부터 위로 3-4대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입니다. 대부분 제사드리면서 무당이나 귀신들 우상들에게 자손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들과 맺은 계약이 지금도 유효한 경우입니다. 그 계약들을 파기시켜야 합니다. (7152)

12. 계약 파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돌렸습니다.(마 27:25) 그 결과 후손들은 거의 2천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떠돌이로 살아야 했으며, 나치군에 의해 600만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죄를 후손들에게 돌린 조상들이 잘못이지 후손들이 뭐 잘못입니까? 예수 잘 믿어도 환란을 당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조상들이 귀신들과 맺어놓은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예수 이름으로 찢어버리고 파기시켜야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무당을 섬긴 후손은 유독 시기, 이간질, 분열, 이혼이 많습니다. 조상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후손은 공상을 많이 하고 이상주의자이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상이 미신을 섬긴 후손은 어리석음의 영이 임하여 이상한 이단 교리에 잘 빠집니다. 조상이 잡신을 섬긴 후손은 가난의 영과 혼란의 영과 무슨 일을 해도 손해보는 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면 조상들이 귀신들과 맺은 계약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나와 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기하노라! 이 계약을 통해 내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끊어버리노라!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와 나의 가정과 후손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노라! 이제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7153)

13. 상처 조의 회개

회개 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마음의 상처’를 회개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태어날 때나 어릴 때 많이 들어옵니다.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방어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 태어나거나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기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잠재의식에 쌓아둡니다.

저는 작년에 저의 태어날 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알았습니다. 제 생일이 넝쿨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5월인데, 왜 그렇게 장미만 보면 마음이 슬퍼지는지 평생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던 것이죠.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뱃속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남아서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나니 그 쓴 뿌리가 쏙 빠져나갔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크면 그놈을 반드시 죽일거야, 내가 그 새끼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같은 말로 맺어놓은 맹세 같은 계약들이 생각나면 다 회개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7154)

14. 부정적 생각 조의 회개

회개 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한 죄를 회개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주의(理性主義)자들에게 많습니다. 이성주의를 합리주의(合理主義)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의 기적과 신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은 신앙의 신비를 이성으로 판단하여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을 부정하고 치유, 예언, 축귀 같은 것들도 다 부정합니다. 자기만 부정하면 좋은데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까지 판단하여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성주의는 기적과 이적을 '기복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신앙에는 어느 정도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성주의적 태도를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긍정주의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사고나 긍정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것은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7155)

15. 내적 맹세 주의 회개

회개 해야 될 네 번째 내용은 바로 '내적 맹세(Inward oath)'로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내적 맹세는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요즘 캘리그라피에 빠져있는 아내가 “나는 글씨를 진짜 못써. 나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 글씨와 그림을 보고 그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도 훨씬 글씨를 이쁘게 씁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 배에서 나온 딸이 미대(美大)를 졸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사려 깊지 못한 말은 한 사람을 평생 글씨 못 쓰고 그림 못 그리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문제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말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거야.” “나는 가난해” “나는 불행해” “나는 노래를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마음에 새긴 말이 바로 '내적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는 평생 그 사람을 맹세에 묶인 채 살아가게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7-28) 오! 정말 무서운 말 씁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내적 맹세를 남발하고서도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맹세를 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회개의 영이 임하면 어릴 적부터 해왔던 부정적 내적 맹세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취소합니다.” 하고 그 효력을 끊어야 합니다. (7156)

16. 자범죄주의 회개

회개 해야 될 다섯 번째 내용은 바로 '자범죄로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축출해야 합니다. 자범죄는 살아있는 한 누구나 짓는 죄이며, 자범죄를 짓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거짓, 시기, 질투, 미움, 헐기, 화, 분, 음란, 걱정, 근심, 두려움, 악함, 양심, 불평, 불만, 의심, 유희, 쾌락, 가난, 인색, 무능, 수다, 불충성, 음주, 흡연, 게으름, 원망, 우울... 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이니 세어본다면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음란, 강도짓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그

러나 선하게 살지 못한 것, 불의를 보고 지나친 것,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교만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입만 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홍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틈만 나면 뒷담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범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죄성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7157)

17. 회개의 방법

회개의 방법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회개하면 그 죄의 경향성(죄성)을 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죄를 지었으면 반복하여 회개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조금씩 죄성이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증언부언이란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지,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시간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지만 그것을 증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었으면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롬5:9)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롭다 하심을 받음)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용서)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살거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치 은혜가 올라오는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 반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하나씩 뿌리 뽑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7158)

18. 마음을 다한 회개

회개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대충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판생각이 들어서 방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잠깐 멈추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중을 방해하는 영아! 내 머리에서 떠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영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기독교보다 가톨릭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접근합니다. 가톨릭에는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사제를 통해 하느님께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습니다. 사제가 죄의 종류에 따라 헌금을 명한다든지 봉사를 명한다든지 ‘속죄’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는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엄중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거나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마귀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놈들이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회개는 인내해야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비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은 은혜와 회복을 가져다줍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159) ©최용우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7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2년 4월 현재 7212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2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사진:최용우)

햇별같은이야기 서버

지난 8년 동안 사용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서버가 도착했다. 새로운 서버를 구입하여 장착하고 현 서버는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늘 온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약 10,000,000명이 이 서버에 접속했고 약 400,000,000부 정도를 사람들이 봤으니 정말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은퇴한 것이다.

일단 SSD 2개를 빼내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물 스티커 사다가 붙여서 버려야지. 부속품들이 8년이나 지나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요즘은 컴퓨터 부품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년만 지나도 구닥다리가 되고 만다.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서버의 특성상 서버를 24시간 관리해주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햇별같은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버 회사인 '스마일 서버'에 위탁해서 돌리는 중이다.

서버야, 지난 8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다가는 대청마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서 고맙다. 너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맙다.

잘 가거라.

무서운 가시

바람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고 포근해졌다. 이제 진짜 봄이다. 모처럼 옷을 가볍게 입고 운동을 나선다. 금강솔바람수변공원길을 따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길을 건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봄에 가장 빨리 꽃이 피는 산수유 꽃망우리를 들여다본다. 아직은 사진을 찍을 만큼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카시아 가시가 눈에 들어와 꽃 대신 찍었다.

그런데 가시가 진짜 후덜덜 하게 크고 날카롭다. 저 가시에 한번 찔리면, 어후=3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이카시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 몸에 무서운 가시를 가지고 있다. 가시가 단단하여 찔리면 그 끝이 살 속에 남아 바늘로 파내야 한다. 가시에 찔린 곳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엄청나게 아프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영일식당

갑자기 고구마가 먹고 싶어 마침 5일장이라 대평장에 갔는데, 영일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간판에 적힌 '팔죽'이라는 글씨를 보고 갑자기 팔죽이 먹고 싶어서 들어갔다.

“팔죽은 지금 안되고 황태순두부국이 맛있어요. 황태 드셔~”

“그러유. 한 그릇 쥐봐유~!” 황태순두부국을 후다닥 차려주고는 주섬주섬 단장을 하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1시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들 잡수고 가셔유. 음식값은 선불로 받을게유.”

밥을 먹다 말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지갑을 열었다. 돈을 다 받은 아주머니는 문을 열고 황~ 가버렸다. 잠시 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와 “주문한 순두부...” 가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손에 들더니 알아서 체크기에 카드를 넣고 값을 찍고 간다.

나도 주인 없는 식당에서 밥을 천천히 잘 먹고 나왔다.



책 정리

이번 주간 내내 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오늘도 오래된 책들을 골라내어 박스에 담았다. 방바닥에서 천정까지 두 줄로 쌓아놓았던 책들을 없애고 집에 있는 책장 열개에 꽂을 정도만 남기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까지 12박스 약 1천권 정도 골라냈다.

창고에 있는 박스를 다 사용하고 동네 돌아다니며 박스를 주워왔다. 날마다 박스를 주워가는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 살짝 가지고 왔다.

재활용 쓰레기 내놓는 날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놓으면 가져가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 우선 차로 두 번을 실어서 9박스만 내놓았다. 박스에 뭐가 들어있나 열어 볼까 싶어 [폐지 -100% 종이입니다] 라고 딱지를 딱 붙여서 내놓았다.

분신 같은 책들을 떠나보내니 시원섭섭하다. 보내야 또 새로운 책이 들어온다.

16년 동안

우리 집 우편함에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분으로 짐작되는 분 앞으로 오는 편지가 1년에 두어 번 정도 온다. 지난 16년 동안 계속 왔으니 그동안 30통도 넘게 온 것이다. 저 우편물은 반송도 안 된다. 한참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웅이 할머니가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린다.

어느 해 인가는 비에 젖어 땅에 떨어진 것을 줍다가 우연히 내용물을 보게 되었다. 핸드폰 요금 13,000원 미납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이다. 세상에! 지금은 없어져 버린 어느 통신사의 미납요금 청구서가 16년 동안 날아 오다니... 그동안 보낸 우편물 값이 미납요금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저 우편물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사는 것일까? 16년 동안 미납요금 고지서가 날아와 마당에 굴러다닌다는 것을 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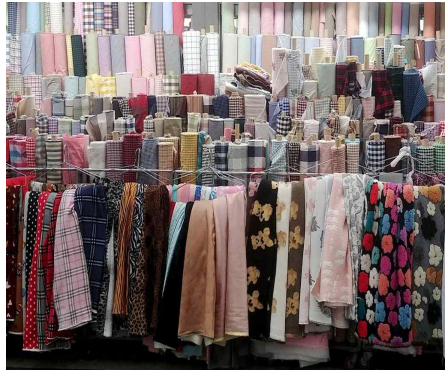


대전 중앙시장

아내가 지난주부터 대전 가자고 졸랐다. 대전 중앙시장에 ‘천’ 사러 가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엄마와 딸들이 나들이 삼아 다녀오곤 했는데, 이제 나를 살살 꼬신다.

오늘은 예매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대전에 나갔다.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니 40분만에 대전역 앞에 도착했다. 온갖 종류와 색깔의 천들은 아내를 홀린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아내가 단골 천 가게에서 천을 고르는 동안 나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저쪽에 석가모니 인형을 파는 데도 있던데.” 어떤 분이 금방까지도 진열대에 옆으로 쌓여(?)있던 불상 하나를 사면서 “잘 모시겠습니다.”하고 그 불상에게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절을 하고는 정성껏(?)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 아내가 성심당에서 내가 좋아하는 팔죽을 사줬다.



상사화

일출봉 올라가는 길에 있는 폐사인 증광사 마당과 산 언덕에 파란 잎사귀가 풍성하게 올라와 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와... 저 푸른 잎사귀 좀 봐. 수선화인가? 무슨 꽃이 필지 정말 이쁠 것 같애” 라고 한다.

저 잎사귀는 ‘상사화’이다. 저렇게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 전부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7-8월 여름 장마철에 연분홍색 꽃대가 올라온다. 잎사귀와 꽃이 따로 따로 피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여 이름이 ‘상사화’이다.

사람들은 저 잎사귀가 상사화 잎사귀인지 잘 모른다. 꽃과 잎사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그렇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고 저찌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빙그레 미소만 지었다.



내 키만큼까지

제주도에 사시는 아무개 목사님이 그동안 책을 50권 쓰셨는데 다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보니 허리까지 닿았다는 글을 읽고 나도 책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한번 다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 보았다.

나는 허리를 지나 배꼽까지는 온 것 같다. 나의 사명선언서엔 '나는 나의 키만큼 책을 쓰겠다'는 구절이 있다. 키만큼 쓰려면 지금 쓴 만큼 더 써야 한다.

오래전에 소설가 조정래씨가 태백산맥 집필을 끝낸 기념으로 그동안 쓴 원고지를 쌓아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원고지가 거의 어깨높이까지 닿는 것이었다. 그 사진을 보고 겁도 없이 "나는 내 키만큼 책을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책을 썼더니 이제 내 키의 반 정도 올라왔다. 좀 더 노력하면 결국 내 키만큼 쓰지 않을까?



이런 일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부어 목소리가 안 나왔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물을 데워 물속에 손발을 담그고 있었다. 으슬으슬 온몸에 한기가 돌면서 갑자기 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아내와 똑같은 증상이 아내보다 이틀 늦게 나타난 것이, 이것이 뭐시다냐...

아내는 분명히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오미크론 초기 증상이 분명하다. 목이 붓고... 몸이 무기력해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병든 닭처럼 양지쪽에서 햇볕만 쬐었다.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졌다. 툭툭 털고 일어나 비학산에 후다닥 다녀왔다. 사방에 진달래 꽃이 만개해 있었다. 땀을 쭉 빼고 나니 갑자기 몸에 기운이 돌아왔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정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내 몸속의 항체가 바이러스를 무찔러버린 것 같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45회 매방산(182m) 대전 유성 금단고개

매방산은 대전 신탄진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 대청호 방향으로 솟아있는 산인데 주소는 대전시 유성구 대통동이다. 대1통동 새마을회관을 네비게이션에 찍으니 우리집에서 13km 거리에 있는 산이다. 거리는 가까운데 대전에 속한 산이라 관심 밖에 있어서 오늘 처음 오른 것이다.



가다가 보면 박산리를 지나간다. 원래는 '박사리'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인지 마을에서 '박사'가 열명도 넘게 나왔다고 한다.

그 옆에 마을 이름은 '대박리'이다. 어떤 통신회사에서 전국의 특이한 마을 이름을 주제로 광고를 찍었는데 대박리에서도 찍었다고 한다.

더 가면 숨어있는 것 같은 마을이 나오는데 이름이 '대통'이다. '대동'인 줄 알고 네비게이션에 찍으니 안 나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대통'이었다. 대1통에서 금단고개를 들머리로 산에 올랐다. (2021.3.9. 홀로산행)

▲제546회 비학산233 (일출봉252m) 2022.3.21.

▲제547회 비학산234 (일출봉252m) 2022.3.25

▲제548회 비학산235 (일출봉252m) 2022.3.30

비학산 일출봉 정상에 상수리나무 두 그루 서 있다. 아니 세 그루인지도 모른다. 셋인 듯 둘인 듯... 내 기억으로 15년 전 맨 처음 일출봉에 올랐을 때 분명 세 그루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나무가 딱 붙어서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서로 합쳐져 한 나무가 되는 현상을 연리(連理)라고 한다.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 하여 '사랑 나무' 라고도 부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우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곡우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란 봄비(雨)가 내려 백곡(穀)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가 마른다.’, ‘곡우에 모든 곡물이 잠을 깬다.’, ‘곡우가 넘어야 조기가 온다.’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곡우 무렵에 벼씨를 담그는데, 개구리나 새가 와서 모판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벼씨를 솔가지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땅의 신이 질투하여 쭉정이 농사를 짓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를 ‘모공장’에서 길러 기계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잠자리를 몇 번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참 좋은 세상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해마다 4월초부터 한달간 태안 꽃지해수욕장 옆에서는 태안튤립꽃축제가 열립니다. 튤립꽃 축제 중에서 규모로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축제라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튤립꽃들이 눈을 황홀하게 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저도 나의 영원한 연인과 함께 가서 하룻동안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바로 옆에 꽃지해수욕장도 있어서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축제입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3월에는 재판<감사주보><기도주보> 2권 발행했습니다.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57.겨울목상 - 218쪽 13,900원(올컬러) -12월27일 발행!

56.들꽃편지2권 썩부쟁이꽃 - 504쪽 21,200원 -11월30일 출간

55.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예동) - 326쪽 14,600원 -11월5일 출간

54.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1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3월 재정결산

2022년 3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주옥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소남숙 신희선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정옥 이진우 장기갑 정호숙 주명혁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대청교회 새벽기도 성실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30분이 1,2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4.20일 현재 7212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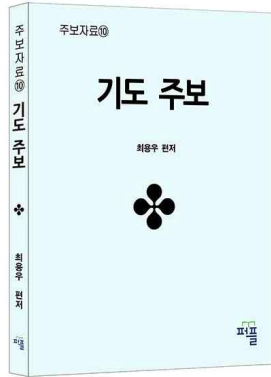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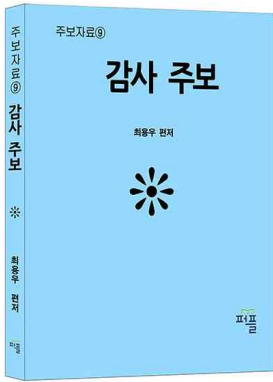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5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판
새 편집 컬러

3월에 2권이 나왔습니다.

9권 감사 주보+파일
10권 기도 주보+파일

최용우 편저
각권 220쪽
14000원(컬러) 교보 퍼플

드디어 <기도주보>를 교보문고에 등록하면서 주보자료집 1-10권을 마무리합니다. 청년 때 “한국 교회를 주보와 전도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는데 10년 동안 만든 주보자료집을 통해서 약 1500여 교회에 주보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제 ‘주보자료’는 교보문고에서만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보자료를 열심히 재판집하여 교보문고에 올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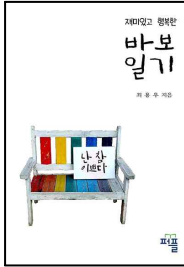
이제는 한국교회가 쓸만한 전도지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은 온갖 전도지 수백장을 분석해서 ‘한국 교회 대표 전도지’를 만들어 온 세상 언어로 모두 번역하여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영리’ 전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7영리’이고, 개인적으로는 ‘10영리’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 가지 법칙’을 따라갑니다. 그런 전도지를 만들 것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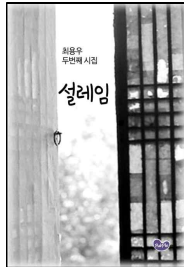


최용우 저서



바보일기

나는 멍청하고 멍청하여라.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하구나. -라던 노자(老子)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당대에 밝다고 똑똑했던 그 많은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365편의 바보같은 이야기
23,900원 394쪽(컬러) 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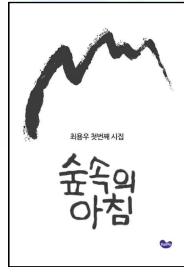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별떡거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펄플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재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14,300원 398쪽 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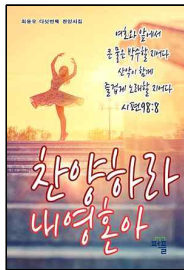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와 갈 곳 없이 방황하며 공원 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시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펄플



어부동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작은 산골마을 어부동에 살면서 호숫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고 환하고 시원한 시. 기분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7,600원 150쪽 펄플



찬양하라 내영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나니 오늘도 입으로 말로 글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14,300원 398쪽 펄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9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